

# “여행하기 좋은 청정 완도 어촌체험휴양마을로 오세요”

### 노화읍 북고리·보길도 보옥리 어촌체험휴양마을 전복 따기·시식 체험에 고동 잡이 무료 체험도

봄, 여행하기 좋은 계절이다. 완도군에서는 청정 바다 등 천혜의 자연환경은 물론 풍부한 먹거리, 다양한 즐길 거리가 있어 가족 여행하기에 좋은 어촌체험휴양마을을 두 곳을 추천한다. 완도 화흥포항에서 여객선을 타고 30여 분 정도 달리면 '전복의 고장' 노화읍에 닿는다. 노화읍 북고리어촌체험휴양마을(노화읍 고막리 767-9)은 완도 대표 수산물인 전복의 주산지답게 전복을 직접 따보고 현장에서 시식하는 체험을 할 수 있다.

전복 따기·시식 체험은 신청자가 20명 이상이 되면 가능하고, 체험 비용은 3만 원이다. 완도 전복은 청정 바다에서 나는 다시마와 미역을 먹고 자라 각종 비타민과 철분, 칼슘, 칼륨, 단백질 등이 많이 들어 있어 '바다의 산삼'이라 불리며 최고의 보양식으로 꼽힌다. 여름에는 전통 물고기잡이 방식인 '개매기' 체험도 준비할 계획이다. 또 다른 어촌체험휴양마을은 노화도에서 보길대교를 지나면 보길도에 있는 보옥리어

촌체험마을(보길면 보옥길 3-110)이다. 보옥리 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는 물때에 맞춰 고동 잡이를 할 수 있으며 비용은 무료이다. 보길도에는 가을 만한 곳이 많은데 친환경 해변에만 부여하는 국제 인증인 블루플래그를 획득한 예송리 해수욕장과 예송리 상록수림, 통리·중리 해수욕장, 보옥리 공룡알 해변, 망골 전망대, 고산 윤선도의 숨결이 남아있는 세연정 등이 있다. 노화읍 북고리어촌체험휴양마을의 전복 따기 체험 및 숙박 이용 등에 대한 문의 사항은 김상복 사무장(010-6262-0454), 보길면 보옥리어촌체험휴양마을은 김영단 사무장(010-5067-6643)에게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노화, 보길의 어촌체험휴양



보길면 어촌체험마을이 있는 보옥리 전경  
마을에서 청정 완도의 바다를 체험하고, 한적한 섬에서 제철전, 행복한 추억을 쌓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완도=기동취재본부



##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 행복 굶는 ‘파티쉐 제빵 교육’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이사장 김성)은 지난 13일 교육생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흥의 행복 굶는 파티쉐 제빵 교육’ 개강식을 가졌다. 교육은 4월 13일부터 7월 6일까지 총 14회에 걸쳐 베이비 만주, 소금빵, 표고빵 등 13종의 빵을 만들어 보는 과정으로 계획됐다. 제빵 강의는 광주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김영모 교수가 진행한다. 이번 제빵 교육은 표고버섯 산업화의 일환으로 시행된다.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원목 표고를 활용한 표고빵 개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교육생들은 베이커리 창업을 위한 제빵 기

술 습득하고 장흥지역 표고빵을 알리는 서포터즈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박승배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장은 “장흥군 특산품인 원목 표고의 다양한 제품 개발과 건강한 먹거리 이미지 홍보로 소비 촉진과 고부가가치 창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도영기자

## 강진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어린이 대상 ‘감자와 떠나는 텃밭 여행!’ 프로그램 실시

강진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지난 4월 6일부터 4월 10일까지 어린이 대상 ‘감자와 떠나는 텃밭 여행!’ 단계별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식생활교육 전남네트워크’와 연계해, 강진군 어린이집 4개소를 대상으로 텃밭에 직접 감자를 심어보며 관찰하고 수확해, 로컬푸드에 친밀감 형성과 균형 잡힌 식생활을 목적으로 텃밭 프로그램 지도 전문가와 함께 진행했다. 이달에는 1단계로 감자 심기를 완료했고, 5월부터 2단계 감자 관찰하기, 6월엔 3단계 감자 활용 아트클래스, 8월~9월에는 4단계 감자

활용 요리 활동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새하늘어린이집 박선영 원장은 “아이들이 농작물 체험에 직접 참여하며 로컬푸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감자를 싫어하는 입맛도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인옥 센터장은 “아이들이 직접 심은 감자를 수확하는 날이 기대된다”며 “제손으로 직접 키운 감자를 수확해 성취감을 느끼고 동시에 식재료의 소중함을 배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기자

## 해남군, 땅끝·우수영관광지, 두륜미로파크 무료 개방 오늘부터 입장료 면제...인조잔디구장 사용료도 무료 전환



해남군이 4월 17일부터 땅끝전망대, 우수영관광지, 두륜미로파크 등 관광시설 3개소에 대한 입장료와 인조잔디구장 사용료를 무료로 전환한다. 한반도의 시작이자 끝을 의미하는 땅끝전망대, 이순신 장군의 호국정신을 있는 우수영관광지, 1만 3천여주의 나무들로 미로를 조성한 두륜미로파크는 해남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많은 이들이 찾고 있다. 이번 무료 전환은 지난해 민간 운영 관광시설과 연계해 실시한 군 지역 관광지 무료입장 사업을 확대한 것으로, 군은 지난해 하반기 민간운영 관광시설 5개소를 이용하면 군 지역 관광시설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도록 운영한 바 있다. 또한 우수영관광지, 두륜도립공원 내 인조잔디구장의 경우 최근 2년 동안 구장의 이용객은 증가했지만 조례상 무료 이용자가 대부분으로, 실수입은 거의 없는 상황으로 무료 이용 전환을 결정했다. 이번 무료 입장은 4월 17일부터 시행된다. 군은 관광시설 무료 개방 및 인조잔디구장 사용료 무료에 대한 조례 개정 절차를 마쳤다. 해남=기동취재본부

## 진도군, 농어민 공익수당 39억원 지역상품권 지급

진도군이 농어민 공익 수당 39억원(6,479명)을 진도아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14일 진도군에 따르면 농어업인의 생계 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농어민 공익수당 60만원을 마을 방문을 통해 현장 지급했다. 당초 군민들이 농협을 방문해 신청·지급할 예정이었지만 교통 취약 노령층에 대한 배려를 위해 마을회관에서 읍·면사무소 공무원들이 직접 지급하는 주민 편의 행정 서비스를 펼쳤다.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실시된 마을 현장 지급 기간 내 미수령자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분증 지참 후 주소지 관할 지역농협을 직접 방문, 수령하면 된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신속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통해 본격적인 영농철 경영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기자

#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한국섬진흥원

전라남도